

## ‘돈 되는 오리’

HPAI로 인해 오리 산업에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PAI 발생농장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더욱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재 입식의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오리농가에서 농장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리 사양관리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축사 침수피해 이후 시설 및 가축관리 요령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 영향으로 논과 밭은 물론 축사가 침수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긴 장마와 집중호우를 비롯해 폭염, 폭설 등 기상재해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축산 농가의 피해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농가는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사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가축 질병 발생이나 사료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축사

비가 그치고 농장주는 우선적으로 축사 주변 울타리가 무너진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축사 내 구멍 메우기 작업을 실시해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를 막아야 한다. 또한, 축사가 빗물에 잠겼다면 침수됐던 시설에 남아있는 유기물 등을 깨끗이 씻어 낸 후 수해로 인해 들어온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농장 및 축사주위의 배수로나 막혔는지 확인하고 나뭇가지, 잔해들로 막혀있는 배수로를 정비한다.

죽은 가축이 있다면 즉시 매몰 또는 소각처리 해 죽은 가축으로부터 다른 가축이 오염되지 않도록 신속히 분리하고 소독제를 흘뿌려 준다. 소독제는 가급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효력이 있는 소독제를 사용한다.

침수 또는 환경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축을 위해 먹이통과 물통은 깨끗하게 씻고, 가축에게는 지하수보다 수돗물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를 제공할 때는 정수용 염소 소독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축축한 축사의 습도를 빠르게 낮춰주기 위해 축사는 충분히 환기해야한다. 적정 습도 40~70%를 유지하고, 분뇨를 자주 치워 축사 안에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퇴비저장시설과 분뇨처리장 등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을 철저히 점검한다.



## 가 축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가축의 건강 상태를 보다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사료 먹는 양과 움직임이 줄어든 가축은 가까이에서 체온, 호흡, 분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 질병 여부를 확인한다.

침수됐던 가축은 피부병 예방을 위한 축체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고여있는 물 등에 파리·모기와 유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구제와 구충제 투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료는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 급이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광물질을 별도로 보충해 주고 신선한 냉수를 함께 먹여주는 것이 좋다. 또한, 사료는 건조하게 보관해야 하며 무엇보다 곰팡이로 인한 변질과 부패가 없는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 질병 예방관리

- 오리사내로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고 바닥 세척·건조 및 소독을 한다.
- 침수로 인한 폐사축은 신속하게 매몰 또는 소각 조치한다.
- 오리사내 과도한 수분 제거를 위한 깔집교환, 계사 환기량 증가, 유해 가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분동 등 평당 사육수수를 최소화한다.
- 수질 오염에 의한 전염성 질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수 및 주위 환경 소독 철저히 한다.
- 오염된 물을 먹었을 경우 세균성 설사병 예방을 위한 광범위항생제 및 항균제를 투여한다.
- 수해에 따른 다양한 스트레스 발생으로 발병이 높아지는 가금 인플루엔자, 가금 티푸스 등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비타민 C 등 면역 증강제 및 항스트레스제를 투여한다.
- 수해 뒤 급격히 증가하는 모기 혹은 유충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연막소독 및 오리사 주위 웅덩이 소독으로 류코사이토준병 등의 모기매개성 질병을 조기차단한다.
- 수해 뒤 일정기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급박 하지 않은 백신접종, 사료 교체 등은 당분간 연기한다.

